

배포 2026. 2. 2.(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2. 3.(화) 06:00
(지면) 2026. 2. 3.(화) 석간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발표

-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
- 2026년에 사각지대 없는 돌봄 지원을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3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 【관련 국정과제】 101-2.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및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3일(화),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창의재단):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 53.9%(25.8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 75.3%(26.1월)

<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

구분	'25년	'26년
돌봄 참여 지원	학교 중심(일부 지역에서만 학교-지역 협력), 초1·2 집중 지원	학교-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초1·2 집중 지원 + 초3 이상 사각지대 해소*
무상 프로그램	안정적 참여 시간(매일 2시간) 보장 중심, 초1·2 집중 지원	초3 프로그램 선택권(연 50만원) 강화, 초1·2는 기존 방식으로 지원
안전 관리	귀가 안전 관리, 프로그램 등 검증 관리	안전 관리 지속 강화

* 초3~6은 돌봄 수요(25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를 고려하여 사각지대 해소 중심 지원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방안에 포함된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운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참여 / 제1차 운동네 초등돌봄 교육협의체 개최(25.11.27.)

** '26.1월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구성률 100%), 207개 기초지자체(구성률 91.6%)에서 협의체 구성

2.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 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운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운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 구체적인 협력 방안 예시, 현장 우수사례 등을 담은 ‘운동네 초등돌봄 교육 모델 시안 안내 완료(25.12.18.)

** '26년 240억 원 지원하여 15개소 이상 확충 및 특색 모델·방학 중 집중 운영 등 마련 지원 기준 거점형 돌봄센터 개편 확대

3.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 ('25년)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42.4% → ('26년) 초3 참여율 60% 달성 추진
(초3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하여 초4 이상 지원 방향 '26년 중 검토)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원,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지원

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2.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교육 운영 현장 사례

【별첨】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담당 부서	학생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효신 (044-203-6603)
		담당자	서기관	전민환 (044-203-6604)
			주무관	서보승 (044-203-6533)
			교육연구사	강동훈 (044-203-6607)

Q1. '26년에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 전 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가 계획을 취소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정부는 기존의 계획대로 지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초3 이상의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방식도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24년 2월에 발표한 '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통해
 ①'26년에 희망 초1~6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26년에도 초1~2 희망자에게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초3 이후 방과후 교육비 지원 방안은 추후 검토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수요 분석을 통해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점을 확인*하여, '26년부터 ①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②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한 것입니다.

*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창의재단): '참여 시간이 줄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 희망' 53.9%(25.8월),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 75.0%(26.1월)

Q2. 앞으로 초3 이상은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합니다.

현재도 학교돌봄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1·2가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 중*입니다.

* '25년 초3~6 학교돌봄 참여율: 초3 6.0%, 초4 2.2%, 초5 1.0%, 초6 0.8% (합계 약 4.1만명)

앞으로 학교돌봄을 계속 내실화하면서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도 확대하여, 그 간 돌봄을 필요로 했지만 돌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초3 이상 학생들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Q3. 앞으로 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은 운영 안하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돌봄·교육이 계속 제공됩니다.

그 간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에도 돌봄, 독서교육, 예체능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이 지속됩니다.

※ '25년 기준 아침돌봄교육 이용 학생 수 26,888명 저녁(17시 이후)돌봄교육 이용 학생 수 10,558명
또한,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심야·방학·주말, 일시·긴급 상황 등에 지역사회가 돌봄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Q4. 시설 안전, 이동 중 안전 때문에 지역 돌봄기관을 이용하기가 불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A. 지역 돌봄기관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이동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도 추진하고, 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귀가 지원 인력 배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25.12월 현재 약 5,341명의 인력 배치 수요 확인, 3,525명 매칭 완료

Q5. 우리 지역은 학교도 지역 돌봄기관도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경우의 대책은 있나요?

A. 지역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돌봄·교육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간 운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교육부는 운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과 학교돌봄·교육 내실화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Q6.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이 이루어져도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A.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강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사 모집이 어려운 소외지역 등에 프로그램을 집중 공급하는 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사업 규모 확대 등도 검토 중입니다.

※ '26년 소외지역 프로그램 공급사업(창의재단): 총 150억, 학기당 총 1,500학급 내외 아울러,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강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허브 운영을 확대하고 기능도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Q7.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학교 밖에서 쓸 수 있나요?

A.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26년에는 행정 처리가 비교적 용이한 학교 안 방과후 수강료에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여건이 되는 교육청은, '26년부터 공공 비영리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등이 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Q8.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3에게만 지원하고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A.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6년 초3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정책이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초3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등 성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성과를 연중 분석하여, '27년 이후 초4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 확대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광주 효동초 통합돌봄네트워크 >

- **개요:** 구도심 재개발로 인한 학교 학생 수 급증과 공간 부족을 극복하고 **츄츄한 돌봄을 제공** 하기 위해, **학교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온(溫)마을 통합돌봄네트워크**'를 구축
- **운영 현황**
 - **지역돌봄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5개소), 다함께돌봄센터(3개소), 온마을다봄터(1개소)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내실화
 - **지자체 및 공공기관 협력:** 행정복지센터 내 공간을 확보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전래놀이부)을 매주 2회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및 중흥도서관과 연계한 인문학 특강으로 교육 환경 확장
 - **전문성 중심의 교육 연계:** 교육청 거점센터(늘봄, 새봄 등)와 연계해 주말·방학 돌봄을 지원하고, 대학(RISE) 및 전문 단체(핸드볼협회)의 우수 강사진을 투입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실질적 상생 지원:** 학교 강당, 다목적구장 대여 및 교체용 책걸상 기증 등을 통해 지역 기관의 돌봄 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상호 신뢰 기반의 네트워크 구축



< 대전 (가칭)운동네 방과후·돌봄센터 >

※ 명칭을 종전 '지자체 연계형 거점형 늘봄센터'에서 '(가칭)운동네 방과후·돌봄센터'로 변경 예정

- **개요:** 초등 고학년의 돌봄·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구청)별로 거점 돌봄·교육 운영 기관을 1개씩 지정**하고 관내 희망하는 **초4~6 대상 학교 밖 돌봄·교육 프로그램** 제공
- **운영 현황**
 - **개괄:** 총 5개소*를 조성하여, 5개소 합산 평균 일 270여 명 이용 중
 - * (중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동구)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덕구)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서구)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유성구) 유성구청소년수련관
 - **프로그램:** 기관별 특색에 맞는 수영, 클리밍, 오케스트라, 창의과학, 직업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통학 차량:** 통학버스 총 6대 운영(중구 25인승 2대/서구·동구·대덕구·유성구 45인승 각 1대)
 - ※ 참여 학생 소속 개별 학교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운행 중이며, 등하교 서비스 모두 제공



< 충남 천안 늘봄성정 운영 >

- 개요: 천안 구도심에 위치한 **성정초의 별관을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하여, 천안교육지원청이 천안 관내 학생 전체 대상으로 돌봄·교육 운영('25.3~)
- 운영 현황
 - 개괄: 총 14실(돌봄교실 6, 프로그램 교실 8)을 조성하여 평균 일 200여명 이용 중
 - 프로그램: '25년 1학기 기준 방과후 프로그램 26개*' 운영(방학 중은 수요에 맞게 조정), 돌봄 20시까지 운영(학기 중은 정규수업 이후부터, 방학 중은 오전 9시부터)
* 체육, 예술, 창의과학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학·영어 등 교과 프로그램도 일부 포함
 - 통학 차량: 방학 중을 중심으로 25인승 버스 3대를 운영
※ 등·하원 시 모두 운영하며, 승·하차 위치는 학생별 소속 학교 정문
 - 급·간식: 참여 학생들에게 간식 및 급식 무료 제공 ※ 급식: 돌봄 참여자 대상 / 간식: 전체 대상
- 기타: 정규수업 이후 이동 부담이 큰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보다 이용 활성화
※ '25년 1학기 총 이용 학생 수 211명 → '25년 여름방학 총 이용 학생 수 332명



< 서울남부교육지원청-서울시거점형키움센터(구로, 영등포)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

- 개요: 교육지원청-키움센터(2개소) 연계·협력을 통해 키움센터의 우수한 강사(인력), 시설(공간)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교육지원청) 희망학교·학생 매칭, 예산 부담(50%), 민원 대응, 학생 이동 지원, 홍보 등 총괄 관리 (키움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위촉, 공간 제공 등
- 운영 현황
 - 참여 현황: 키움센터 인근 5개교에서 초1~2학년 일 평균 60명 참여(만족도 96.5%)
 - 프로그램·강사: 2개소 합산 약 40개 프로그램 운영('25년 기준), 학교(교육지원청)와 키움센터가 운영 예산을 공동분담(1:1)하고, 키움센터가 직접 우수한 전문 강사 선정·계약 및 인력풀 확보
 - 돌봄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참여 학생들에게 키움센터가 '저녁 돌봄서비스(~20시)' 제공
 - 이동 지원: 키움센터 차량(10인승)과 학교 자체 스쿨버스를 활용하여 이동 지원
- 기타
 - 방학 중에도 프로그램 운영하며, 키움센터가 참여 학생들에게 중식 무상 제공
 - 학교별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위탁 운영 범위 다변화(2개교는 주 5회, 3개교 주 1회 참여)

